

B형 간염 완치 가능

최근 B형 간염이 완치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마이애미대 유진 쉬프교수팀은 최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유럽간학회에서 만성 B형 간염 환자 43명에게 간염 치료제 라미부딘(상품명 제픽스)을 1년 동안 투여한 다음 2년간 약을 끊게 하고 관찰했더니 86%에게서 간염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쉬프교수는 “1년 동안 라미부딘을 먹어서 B형 간염이 증식할 때 발견되는 ‘e항원’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면서 “특히 21%는 항체가 형성돼 ‘완치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라미부딘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약이며 따라서 근본 치료제는 아니라고 여겨왔다. 또 1년 이상 쓸 경우 효과가 떨어지고 내성이 생길 것으로 추정해왔다. <동아일보>



A형 간염 10년새 부쩍 늘었다

감소 추세를 보이던 A형 간염 발생이 전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중순 미 애틀란타의 질병통제센터(CDC) 주최로 열리는 ‘제10차 세계간염학회’에서 발표된 것. 미 질병통제센터 질병역학부 베스 벨 박사는 “최근 10년간 A형 간염의 발생 추이를 조사한 결과, 미 서부지역, 중동 지역,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 A형 간염이 늘고 있다”며 “음식물과 물을 통해 전염되는 A형 간염의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영국 로열프리 의대의 주커만 박사는 “특히 만성B형간염 보균자, 노인,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등과 집단생활을 하는 청소년에서는 A형 간염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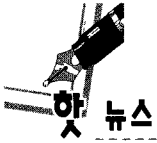
한편 학회에 참석한 고대구로병원 내과 이창홍 교수는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A형 간염에 면역력이 없는 10, 20대 청년에게 A형 간염이 급속히 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간(肝)세포 대량 인공증식 성공

인공배양이 매우 어려운 간(肝)세포를 실험실에서 대량으로 증식시키는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간이식이 필요한 간부전(肝不全) 환자들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브리검 부인병원의 필립 르볼치 박사는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2월 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간세포를 수백만개씩 인공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히고 이를 간기능의 90%가 파괴된 쥐에 이식한 결과 간기능이 회복되었다고 말했다.<연합>



B형 간염자 취업제한 없어진다

오는 8월부터 B형 간염자도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 동안 유흥업소나 접객업소 등 공중시설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전염병에 포함됐던 'B형 간염'이 전염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

보건복지부는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했던 1군 전염병 전체(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와 3군 전염병의 결핵, 한센병, 성병은 지금처럼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2군 전염병이었던 B형 간염은 제외했다 국립보건원 이종구 방역과장은 "B형 간염이 일상생활에서는 타인에게 옮기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 B형 간염 환자들의 공중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 때문에 일부 기업이 단순한 B형 간염 보균자들까지도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B형 간염 환자와 보균자들의 취업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및 보고 규정을 신설, 의사가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쇼크), 뇌염, 뇌증 및 기타 중추신경계 증상 등을 진단하거나 검안하는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예방접종 후 부작용을 일으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신청서를 이상반응 진단 또는 검안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도에 제출토록 했으며, 2명 이상의 전염병 환자가 가까운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집단 전염병'으로 간주, 의사 또는 한의사는 곧바로 보건소에 신고토록 했다.



간(幹)세포로 간(肝)세포 만들어

혈액 간세포(幹細胞)를 조작, 성숙한 간(肝)세포를 만드는 동물실험이 성공함으로써 각종 간질환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의 세포공학회사인 사이토세라퓨틱스의 자회사 스텝셀스 캘리포니아의 에릭 라가스 박사는 쥐의 혈액 간세포로 성숙한 간(肝)세포를 만들어 간기능이 손상된 쥐를 치료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라가스 박사는 일단의 간부전(肝不全) 쥐들에 자신의 골수세포를 주입한 결과, 혈액 간세포가 성숙한 간(肝)세포로 전환하면서 간기능이 회복되었다며 동물실험이긴 하지만 혈액 간세포로 간기능 장애를 치료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새로운 발견은 혈액 간세포를 이용해 간질환 환자의 손상된 간세포를 대체하거나 수리하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라가스 박사는 말했다

그는 또 이 방법은 환자 자신의 혈액 간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식에 의한 거부반응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혈액 간세포의 조작을 통한 여러 종류의 질병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